팍팍한 삶, 가족은 언제나 든든한 응원단

'엄마를 부탁해' '즐거운…' '애자' '아부지' …
책으로 영화로 되새겨보는 가족의 의미

'애자'
'산타렐라 패밀리'
'아부지'
'마이 시스터스 키퍼'

'서 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싶다/ 가슴속 깊은 곳에 담아두기만 했던/그래 내가 사랑했었다/긴 시간이 지나고 말하지 못했던/그래 내가 사랑했었다.'〈인순이 '아버지' 중〉

올해 문화계 트렌드 가운데 두드러지는 게 '가족'이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단행본 사상 최단기간에 100만부를 돌파했고, 모녀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영화 '애자'도 관객몰이에 한창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팍팍한 삶속에서 가족은 언제나 든든한 응원군이다. 고향을 떠난 가족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추석.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책과 영화들을 소개한다.

▲글로 만나는 가족=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엄마를 통해 '가족'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다.

엄마가 지하철 서울역에서 실종된 뒤에야 가족들이 저마다의 기억을 통해 헌신과 희생으로 일평생 가족만을 돌봐온 엄마의 삶을 뒤돌아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바쁜 생활을 핑계로 서로에게 무심했던 가족들은 엄마를 통해 다시 '하나'가 된다.

인기 작가 공지영의 산문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인 '엄마'가 전해주는 메시지다. 그녀의 소설에서 화자로 등장했던 딸 위녕에게 쓰는 편지글 형식을 띤 이 책에서 저자는 힘들고 지쳐 있는 딸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무엇보다 뻔한 충고가 아닌, 딸 아이와 똑같은 고민을 겪었던 자신의 경험담을 생생히 풀어놓은 솔직한 글쓰기가 이 책의 매력이다.

공지영의 또 다른 책 '즐거운 나의집'은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가 모티프가 된 소설이다. 남들에게는 콩가루 집안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아빠가 다른 세명의 아이가 함께 살아가는 삶속에서 느끼는 행복을 솔직하게 그리고 있다.

책에는 '또 다른 가족'이 된 일하는 아주머니 등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 '유사가족'들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조디 피콜드 작 '쌍둥이 별-마이시스터스 키퍼'는 미국도서관협회 선정 알렉스 어워드를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책이다. 백혈병에 걸린 언니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난 소녀가 부모님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벌이는 스토리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묻는 작품이다.

출간 당시 미국의 각종 토론 프로그램의 주제로 등장하기도 했던 화제의 소설로 '노트북'의 닉 카사베츠 감독, 카메론 디아즈가 주연을 맡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영상으로 만나는 가족=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는 영화 '애자'는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인기몰이중이다.

만년 소설가 지망생으로 살아가는 29세 애자는 오빠만을 위하는 엄마의 태도에 반발하며 불만이 쌓여가던 중 엄마의 시한부 삶을 알게된다. 그 후 여행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가게 된 두 사람은 결국 아쉬운 이별을 한다. 연기파 배우 김영애와 최강희가 모녀로 출연했다.

스페인 영화 '산타렐라 패밀리'는 마드리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주인공이 갑작스레 나타난 자신의 아이들과 생활하며 가족애를 찾아가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가족 코미디다. '그녀에게'의 주연배우 하비에를 카마라가 출연한다.

'가족의 탄생'은 '피'로 얽히지 않은 새로운 가족 형태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지난 2005년 개봉 당시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평단과 영화를 본 관객들에게는 '2006 최고의 작품'(청룡영화제·한국평론가협회·대종상 작품상)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영화다.

김태용 감독 작품으로 고두심·문소리·엄태웅·정유미 등이 출연한다.

요즘 TV와 라디오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인순이의 노래 '아버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아버지에게 바치는 절절한 가사가 마음을 울리는 곡이다.

특히 단편영화 '아부지'(감독 배해성)를 노래에 맞게 재편집한 뮤직비디오는 노래의 감동을 더해준다. 영화 '아부지'는 까막눈 농사꾼 아버지의 부성을 그린 작품으로 전무송이 영화 속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투른 아버지 역을 맡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일본 '호쿠게이' 극단 '이 길은 언젠가 걸은 길'

2009 광주평화연극상 수상

'이 길은 언젠가 걸은 길' 공연 장면.

지난달 30일 광주 유·스퀘어문화관에서 막을 내린 2009 광주평화연극제에서 일본 극단 '호쿠게이'의 '이 길은 언젠가 걸은 길'이 광주평화연극상(상금 200만원)을 수상했다.

45년 전통의 극단 '호쿠게이'가 무대에 올린 '이 길은 언젠가 걸은 길'은 일본의 대표적인 극작가 베쓰야쿠 미노루 작품으로 7번 만나고, 7번 결혼하는 말기암 환자를 통해 '삶과 죽음'의 의미를 묻고 있다.

아련한 하모니카 연주로 시작되는 이 작품에는 단 두명의 배우가 출연하고, 큰 움직임도 없이 대부분 대사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정적인 구조지만 어떤 역동적인 작품보다 깊은 울림을 줬다.

특히 중견배우들의 잔잔하지만 섬세한 연기가 인상적이어서 자막 해설을 봐야하는 번거로움이 오히려 또 다른 텍스트를 읽는 듯한 경험을 전해줬다. 한편 이 작품은 이행원 연출로 광주 배우 이기인·정경아씨가 공연, '또 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광주연극협회가 주최한 이번 연극제에는 모두 6개 작품이 공연됐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평화연극상을 시상했으며 전문가와 시민심사위원 등 27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지난해 광주평화연극상 수상작은 극단 초인의 '선녀와 나무꾼'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추석 특별 공연

전남도립국악단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국악공연을 선보이는 전남도립국악단(상임지휘자 김만석)이 추석을 맞아 특별 공연을 준비했다. 3일 오후 5시 목포시 민문화체육센터.

추석을 맞아 한해동안 쌓인 액을 풀고 축원덕담을 하는 '비나리와 상모 휘몰이'로 문을 여는 이번 무대에서는 판소리 중 '심청가 눈뜨는 대목', 4계절 절기에 맞춰 피는 꽃을 모티브 삼아 '부채춤'을 재창작한 '꽃을 찾아 나비가 찾아든다', 대금과 가야금협연 등이 공연된다.

또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군무 강강술래를 남도민요와 춤이 어우러진 무대로 표현한 민요 창무극 '강강술래', '팔월가' 등 풍년을 노래하는 남도민요한마당 잔치가 벌어진다.

전석 무료. 문의 061-375-692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추석 연휴 한복 입은 관람객 '공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추석 연휴 고운 한복입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도 무료 관람하세요."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추석 연휴인 2~4일까지 한복을 입고 오는 관람객에 한해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18일~11월4일)에 무료 입장시키기로 했다.

또 천연염색, 도자기 페인팅 등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흥겹게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체험행사도 마련했다.

이 기간 광주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을 찾는 관람객 중 한복을 입는 내국인과 자국의 전통의상을 입은 외국인은 무료 입장할 수 있다.

또 3~4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비엔날레전시관 앞 테마광장에서는 비보이 댄싱, 연극, 가야금 합주 등의 흥겨운 공연도 펼쳐진다.

이번 디자인비엔날레 '어울림'전이 열리고 있는 남구 양림동 이장우 가옥에서도 쪽, 홍화, 치자 등 천연염료를 이용해 손수건 등을 물들이는 천연염색 체험행사도 곁들여진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